

## 특허청, 디스플레이 업계 지원사격 나선다

- 반도체 이어 디스플레이 업계와 지식재산 제도개선 간담회(8.29.) -
- 반도체·디스플레이 민간 전문가 추가 채용 앞두고 현장 목소리 청취 -

특허청(청장 이인실) 반도체심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 29일(화) 16시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서울 강남구) 대회의실에서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들과 「지식재산 제도 개선 간담회」를 진행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엘지(LG)디스플레이, 주성엔지니어링

최근 국내외 디스플레이 기업 간 격화되고 있는 기술 경쟁이 특허분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간담회는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의 불편사항을 듣고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세계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국내 반도체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단의 설립 취지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허청의 주요 정책이 소개되고 ▲디스플레이 분야 특허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추진단은 지난 4월 반도체 업계와 현장소통의 첫발을 내디뎠고,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산업계와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참석기업 관계자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위주로 사업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세계시장에서 초격차 우위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이 특허로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에 대한 우선심사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특허청 박재일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간담회를 통해 특허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을 되짚고,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이 적기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핵심인력·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반도체·디스플레이 민간 전문가 30명을 심사관으로 채용한 데 이어, 앞으로 민간 전문가를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므로 산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 붙임 1. 「지식재산 제도 개선 간담회」 사진

2. 「지식재산 제도 개선 간담회」 개요 및 참석자 명단

특허청	반도체심사추진단 디스플레이심사과	책임자	과 장 김춘석 (042-481-5950)
		담당자	사무관 이석형 (042-481-5756)



- ▲ 특허청은 29일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주요 디스플레이 기업들과 ‘지식재산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주성엔지니어링,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사진=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제공

**□ 추진 배경**

- 최근 한·중 간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소송 등 해외로부터 국내 기업에 대한 견제가 거세짐에 따라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의 지재권 경영에 대한 위협 요소 확대 우려
- 디스플레이 업계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특허법·제도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산업경쟁력 확보에 기여

**□ 간담회 개요**

- 일시 : 2023. 8. 29.(화) 16:00~17:00
- 장소 :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대회의실
- 참석자
  - (특허청) 반도체심사추진단장, 디스플레이심사과장 등 3명
  - (산업계) 디스플레이산업협회 회원사 관계자 4명
- 주요 내용

시간	(소요)	주요 내용	비고
16:00~16:10	(10분)	참석자 인사 및 개회	
16:10~16:15	(5분)	인사말씀	반도체심사추진단장
16:15~16:30	(15분)	반도체심사추진단 소개	특허청
16:30~17:00	(30분)	참석자 대상 간담회 - 업계 현안 및 애로사항 청취 - 디스플레이 관련 지재권 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 수렴	
17:00		폐회	

**□ 참석자 명단**

소속기업	성명 / 직위	분야
삼성디스플레이	이도영 프로 (IP팀)	디스플레이 패널
삼성디스플레이	김은주 프로 (IP팀)	디스플레이 패널
LG디스플레이	이철호 팀장 (IP출원팀)	디스플레이 패널
주성엔지니어링	김영록 팀장 (특허팀)	디스플레이 장비